인문연구 제94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4, No. 1, pp.205~234
http://dx.doi.org/10.21211/JHUM.94.7

소수자의 주체성과 다문화 정치의 모색

심승우*

〈차 례〉

1. 들어가며
2. 주체와 구조의 이분법을 넘어서
 1)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2) 주체와 구조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3. 주체성과 구조의 변화
 1) 주체성의 정치적 함의
 2) 성찰성의 급진화와 구조의 변화
4. 소수자의 주체성과 '되기'의 정치
 1) 소수자 주체성의 정치적 함의
 2) 되기(becoming)의 정치학과 다문화주의
5. 새로운 정치의 모색: 치안에서 정치로?
 1) 치안과 정치
 2) 급진적 인권의 정치학
6.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변형의 능력으로서 주체의 실천을 중심에 놓고 구조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및 제도의 상호구성적 메카니즘에 기반하여 다문화적 주체의 형성과 다문화주의 지향적인 정치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진정한 다문화적 주체는 차이와 다양성의 증가라는 시대적 조건(구조)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할 때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와 다른 다문화 '주의'적 정치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문화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이주민들의 정치적 실천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정치의 외연과 내용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수집단, 정주민 집단의 다문화적 주체성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민주적 포용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모색이 중요해진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소수자의 정치학, 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주체성, 성찰성

1. 들어가며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고 갈등과 균열을 통합의 계기로 긍정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과 분리시켜 사고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다문화적 시민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주민 집단의 주체성 변화와 못지않게 그런 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이주민-소수자 집단의 주체화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변형의

능력으로서 주체의 실천을 중심에 놓고 구조 및 제도의 상호구성적 메카니즘에 기반하여 다문화적 주체의 형성과 다문화주의 지향적인 정치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진정한 다문화적 주체는 단순히 타자를 수용하는 관용의 미덕이나 역량에 머물지 않는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다문화적 주체는 차이와 다양성의 증가라는 시대적 조건(구조)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할 때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와 다른 다문화'주의'적 정치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자의 주체화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현재의 다수집단 및 주류 집단 중심의 지배적인 질서에 문제제기하고 정당성을 의문에 부치는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한다. 이런 입론은 소수자나 이주민의 주체화 뿐만 아니라 정주민 집단의 정체성 변화를 사고할 때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의 주체화가 다문화 시대에 어떤 함의를 갖고 어떤 새로운 정치를 촉발시키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체와 구조의 관계에 대해 개략적인 철학사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소수자의 주체성과 필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정치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2. 주체와 구조의 이분법을 넘어서

1)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근대성(modernity) 혹은 근대적 사유에서 주체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즉, 아무리 의심해도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는 언명이 웅변하듯이, 근대적 주체 개념은 자아의 확실성, 자명하고

자율적이며 보편적인 실체로서 주체 개념에 기반해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체에 대한 근대적 사유에 중요한 지반을 제공한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 실존주의적 주체 는 소위 언어학적 전환의 물결 속에서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의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고 많은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사회 철학자들은 바로 근대적 주체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자아의 통일성과 초월적인 자명성을 일차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주체' 개념은 이데올로기나 다양한 차원에서 권력의 지배를 받는 '구조의 효과'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후기구조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주체의 통일성을 급진적으로 해체했는 바, 라캉(Jacques Lacan)은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구조(타자 Other)를 중심에 내세웠으며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근대적 주체의 실존적 자유는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환상에 다름 아니라며 주체의 의식은 언어구조의 산물로 규정했다. 다양한 지식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식론적 구조로서 에피스테메(epistme)를 찾으려 했던 초중기의 푸코(Michel Foucault)나 사회의 본질적 구조로서 생산양식 및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강조했던 알튀세르(Louis Althusser) 등이 모두 이런 흐름으로 분류될 것이다.[1] 이런 논리에 따르면 주체는 구조의 효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보이지 않은 권력'(그것이 지배적인 인식틀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의 논리 등등)의 효과로서 주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에서 주체성(subjectivity)이란 구조의 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의 성질이며 여기서 주체의 본원적 자율성과 보편성은 부정된다. 근대철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서 주체철학에 대한

1) 주체주의와 구조주의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탁월한 저서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 출판부, 1999.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러한 비판은 1990년대 이후 이론적, 실천적으로 전복적인 성격('주체의 죽음')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양산하면서 주체 담론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적 주체 비판은 주체의 자명성과 통일성을 가정했던 근대철학 만큼이나 이론적, 실천적으로 난점을 제기해 왔다.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 그들은 주체의 동일성(identity)에 기반한 주체중심주의를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주체성을 구조나 권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제약받는 것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주체를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주체의 또다른 특징으로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즉, 이론적 난점으로서 구조(다양한 규칙과 제도)의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으며, 실천적으로도 현재의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주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사유할 수 없게 되면서 주체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고유한 순혈주의적인 '민족주의'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구조의 지배를 극복할 가능성이 봉쇄되거나 타민족 혹은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인 속성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우리의 민족주의와 2020년대 우리의 민족주의의 성격 및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은 많은 차이를 가지며, 같은 한민족이지만 폐쇄적인 대외정책(정치외교적 규칙)을 고수해온 북한과 남한의 다문화 의식 역시 큰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함의하는 것은 구조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주체와 구조의 상호적인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 지배적이었던 이데올로기나 관행, 규범 등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 계열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했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2) 주체와 구조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이런 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대적 주체 개념으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구조주의적 주체 개념을 극복하려는 흐름 속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는 기든스와 푸코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푸코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주체의 형성을 은밀하게 통제하는 미시적인 규율권력의 억압성을 탁월하게 분석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이러한 권력의 작용에 일방적으로 규정당하지 않는 주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기 푸코는 초중기 입장으로부터 극적으로 선회한다.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개념 도입을 통해 주체의 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한 것이다.[2] 후기 푸코는 '자기에의 배려(the care of the self)', '쾌락의 활용(the use of pleasure)' 등 주체의 신중한 자유의 실천을 통해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윤리적 주체로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삶의 양식을 개발하는 능력을 창출하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푸코가 "21세기는 '들뢰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정도로 극찬한 들뢰즈 역시 구조주의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구조주의의 초월적인 불변성을 넘어서는 사유를 제시한다. 존재의 생성과 변이, 산출적 욕망을 강조하는 들뢰즈는 역사와 사회적 관계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관계와 특정한 배치 안에서 생성되는 주체의 생산적 의지를 강조하는 바, 이러한 욕망은 다수자 중심의

---

2) 일반적으로 푸코가 『성의 역사』 1권을 출판한 이후에 8년 동안 휴식기를 거친 후에 오랜 침묵을 깨고 출판된 후기 저작으로서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과 『성의 역사3: 자기에의 배려』를 후기 푸코로 구분 짓기도 한다. 후반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자아는, 초기 저작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속된 자아와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대적 주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권력 테크놀로지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해나가는 자아 통치성을 갖춘 존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기본적으로 기반하는 푸코의 논의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
Foucault, M., 문경자 외 옮김,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08.

질서로부터 끊임없는 탈주의 과정에 놓여지게 되고 이러한 탈주는 초월적이고 불변적인 주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변이되는 주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되기(becoming)'라는 그들의 개념은 이주민을 포함하여 소수자의 주체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3)]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기든스의 비판은 더욱 명료하다.[4)] 기든스는 (후기) 구조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주체에 대한 구조의 규정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든스에 의하면 구조는 주체를 일방적으로 제약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해, 주체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조종 당하는 꼭두각시 인형도 아니다. 오히려 규칙과 자원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구조를 활용하면서 사회구성체의 재생산과 변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변형적 권력의 소유자이다.[5)] 구조화이론을 권력관계에 적용한 기든스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로 작동하는 권력은 제약(constraints)이자 가능성(enability)이라는 통제의 변증법(dialectic of control)을 주장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초기에 푸코가 강조했던 미시적인 규율권력은 도처에 존재하며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훈육적으로 작동하지만, 권력은 단순히 억압적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양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화를 위해서는 언어적 규칙에 의존하지만 그런 언어규칙

---

3)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들뢰즈의 '되기' 개념을 다문화적 주체화에 적용해 볼 것이다. '되기' 개념에 대해서는 Deleuze and Guattari,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4) 보통 우리에게 기든스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출판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와 특히 당시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정책전략으로 활용한 『제3의 길』 때문이지만 사실 기든스의 박사논문 주제는 주체주의와 구조주의의 뿌리 깊은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이론의 구성이었으며 본 논문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구성론』은 그의 박사논문을 발전시켜 1980년대 중후반 출판한 저서이다.

5) Giddens, A., 『사회구성론』 황명주 외 공역, 자작아카데미, 1998, 24-27.

을 적극 활용하면서 언어의 창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일상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는, 세계적으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이라는 구조(법-규칙)는 분명히 이주민들에게는 자유와 권리의 큰 장애이지만 이러한 국적법의 한계를 활용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주창하는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런 실천을 통해 폐쇄적인 국적법의 유연한 적용과 변화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6] 또한, 국경을 넘는 자본과 노동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기되는 다문화적 도전과 위기라는 구조적 제약이 오히려 반(反)다문화주의를 추동할 수 있지만, '인간과 국민의 자격'에 대해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사고의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원이자 가능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주체와 구조의 역동적인 상호구성적인 관계, 특히 주체의 실천을 통해 구조의 변화를 사고한 이론적, 실천적인 흐름들은 주체와 정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만든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경우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테제는 존재와 의식을 잇고 있는 (계급적) '실천'의 이중성을 강조한 것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경제구조)의 규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의 능동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렌트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세계(common world)를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간주하면서 주체의 능동적인 실천으로서 정치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창출 가능성을 적극 지향하고 있다.[7] 부르디외의 경우 구조와 실천을 변증법적으

---

6) 한국의 국적법과 국적 제도를 비판적, 규범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5권 1호, 2013, pp.175-205

7) Arendt, A., 이진우 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로 매개하는 '아비튀스(Habitus)' 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 같은 강력한 사회구조 조차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고 변화되는 특정한 장의 규칙으로 간주한다.[8] 특히, 문화적 전환기에 있어 국가 권력의 본성과 효과 역시 상황과 맥락 속에서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 역시 자본주의 합리성으로 획일화할 수 없는 차이와 특이성을 가진 다중(multitude)의 실천적 저항과 그 효과에 주목했다.[9] 랑시에르는 소수자, 이방인 등 타자를 배제하는 정치구조가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이들의 저항과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주어진 질서를 지키려는 '치안'에서 새로운 경계를 확장해나가는 '정치'로 외연을 확장해온 것이 정치의 역사라고 정의한다.[10]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상가들의 논의에 기반해 주체성과 실천의 문제를 새롭게 사고하고 다문화주의 시대에 주체와 새로운 정치의 모색에 적용해볼 것이다.

3. 주체성과 구조의 변화

1) 주체성의 정치적 함의

본 논문의 맥락에서 주체성(subjectivity)이란 가장 넓은 의미에

8) Bourdieu, P., "Rethinking the State: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Bureaucratic Field." In George Steinmetz (ed.).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9) Negri A, and Hardt., 조정화 외 옮김, 『다중』, 세종출판사, 2008.

10) 1940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난 랑시에르는 알튀세르의 제자로서 19세기 노동자들의 문서고를 고찰하면서 노동자들이 직접 내뱉는 말과 사유를 추적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권의 확장을 연구했고 그런 문제틀을 역사연구를 통해 발전시키면서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다. 넓은 의미에서 랑시에르 역시 프랑스에서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자로 평가할 수 있다.

서 주체의 성질 및 능력, 그러므로 인간성(humanity) 및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플라톤 이래로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과 연루되어 언제나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무엇보다도,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 본질(essence)로서 규정된 것은 없으며 유일한 사실은 인간이 조건지워진 존재(conditioned being)이라는 점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처한 정치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은 인간을 '절대적으로'(absolutely)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실천적 능력들과 언제나 상호규정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12] 아렌트가 말한 인간의 조건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공동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주체성은 초월적이거나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세계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론은 행위자의 주체성에 대한 기든스의 논의를 통해 더욱 확장할 수 있다. 기든스는 사회과학 이론은 고립적인 개인이나 혹은 인간들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내지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동적인 생활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3] 이런 관점은 주체성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시도들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

11) 푸코적인 관점에서 자기배려의 실천을 철학사적으로 논쟁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박수인, 「플라톤적 철학적 주체성에 대한 푸코식 고찰 : 플라톤적 자기 배려와 '플라톤주의의 역설'」,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5호, 2020. pp. 5-30

12) 이러한 능력에는 아렌트의 고유한 개념인 작업과 능력, 사고와 판단과 의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능력들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조건에 따라 변하거나 왜곡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폐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13) Giddens, 앞의 책, p. 27.

실천은 사회적 규칙(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주체의 실천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즉, 사회세계에서 사람들의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규칙이지만 그런 규칙의 존재·재생산·변형 역시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칙 역시 가변적이다. 즉, 도덕적인 규칙이건 법적인 규칙이건 생활 속 사소한 규칙이건 그것은 불변적인 전체로 있으면서 획일적인 규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실천적 맥락 속에서 가변성을 자체의 특징으로 갖는 것이다.[14] 심지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삶을 근원적인 수준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헌법의 지배조차도 사회적, 역사적인 성격을 본질로 한다. 예컨대, 민주적 자유주의(democratic liberalism)를 주창하는 벨라미(R. Bellamy)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할 때, 자유주의적 헌정적 원리들과 이에 기반한 대의제적 정치제도들과 권리체계들은 잠정협약(modus vivendi)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며 현재의 질서가 초문화적 정당성이나 영구성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15] 그러므로 다문화 시대에 서구의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법의 조항들, 윤리적·정치적 규범, 시민문화 역시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며,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생활형태 속에서 진행되는 조정원리들(coordinating principle)로서 주체의 실천과 참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보면, 관련한 법 규범과 정부의 정책 역시 이주민의 실천, 정주민 집

14) Giddens, 앞의 책, pp. 64-65.

15) Bellamy, R., "Republicanism, Democracy, and Constitutionism" In Laborde and Maynor(eds),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Oxford: Blackwell, 2008, pp. 254-259

단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과 정책이 원형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차별배제 모형'(이주민의 단기체류를 강제하는 법과 정책의 구조) 역시 주체와 구조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16]

2) 성찰성의 급진화와 구조의 변화

그런데 이처럼 정치사회적, 경제적 규칙과 정책(구조)들의 변화 가능성을 사고한다는 것은 인간 주체의 성찰성(reflexivity)을 적극적인 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과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에 고유하고 핵심적인 속성으로서 성찰성은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내면적 사유와 지속적인 관계 맺기, 활발한 유동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성찰성은 주변세계와 행위하는 자아의 일관성을 매개시켜 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존재조건이자 타자와의 상호지식(mutual knowledge) 및 상호이해의 지반이 된다.[17]

그런데 이러한 성찰성의 성격과 효과 역시 가변적이다. 단적으로, 고대와 중세, 근대를 사는 인간의 성찰성은 다른 성격, 다른 효과를 가진다. 특히, 주권국가의 단일성, 민족주의, 산업주의 등

---

16) 유럽의 다문화 정책 및 법 조항의 변천은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특히 이주노동자의 저항과 실천, 일부 정주민 집단의 연대적 투쟁 등에 의해 비(非)시민으로 간주된 자들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보편적인 권리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철우, 「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분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0권 1호, 2017, pp. 199-254.

17) Giddens, 앞의 책, pp. 53-54.

비교적 구조와 환경의 변화가 안정적이었던 근대에 비해 다문화 현상의 증가, 국경에 기반한 주권 국가의 변화, 4차산업혁명에 이어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후기 현대 사회의 구조적 조건은 복잡해지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맞아, 삶과 사회의 좌표로 작동하던 표준과 규범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해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인간-시민의 성찰성은 전근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불과 수십 년 전의 근대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근대성을 발전시켜온 이성이 급진화 된 것이지만, 이성이 축조한 근대 세계의 원리와 규칙, 보편적 윤리의 자명성에 대해 근대적 이성이 스스로 의문에 부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근대적 이성은 근대성 자체의 의미와 성취, 근대 문명의 결함과 한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만들면서 근대화 주체의 내면적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을 '급진화된 근대성(radicalized modernity)' 내지 '성찰성의 급진화(modernization of reflexivity)'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8]

기든스는 이러한 급진화된 성찰성을 핵심으로 하는 후기 근대성의 특징으로 근대적 이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실존적 문제의 해체, 역동적인 구조적 조건 속에서 파편화되고 분열적인 자아의 위험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성적 취향, 이주민의 증가 등 소수문화의 등장, 다원주의의 확산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기든스는 후기 근대성이 발생시키는 이런 한계 및 부정적 징후 역시 성찰성의 급진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명한 규범과 원리가 의문시되고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근대적 이성은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규범과 공동체의 원리를 모색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19]

---

18) Giddens, 위의 책, pp. 64-65.

19) 근대적 이성의 한계와 해체를 강조했던 후기 구조주의 이론가들과 달리 기든스와 같은 성찰적 근대화론자들은 근대성과 단절보다는 연속성과 발

다문화주의적 맥락에서 강조할 것은, 이러한 성찰성의 급진화가 근대성의 산물인 민족국가와 국가적 정체성, 국경에 기반한 시민권 담론을 재구성과 해체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 및 정체성을 구성적·가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소속감과 집단적 정체성 역시 변화하고 생성 중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더욱 밀고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외연'을 규정하는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에 귀속된 애국심의 재조정 역시 가능하며 다문화적 감성과 역량 역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이 도출된다. 즉, '진리'처럼 여겨지는 '단군의 자손' 같은 순혈주의적 한민족의 공통된 집단적 정체성이나 민족국가의 발전 개념 역시 다르게 사고될 수 있다는 것이며 민족의 경계에 대해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에토스와 지향점 역시 새롭게 혁신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20] 비록 이런 재설정의 가능성들이 당장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지라도 미래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가능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문제는 새로운 혹은 다른 인간성 혹은 인격을 구성하는 어떤 성격의 실천을 어떻게 행하는가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이러한 실천에 기반한 구조의 규정력과 변형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묘사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몇 해마다 한 번씩 투표라는 정치적 '실

전적인 극복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삶과 사회적 생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찰적 근대성 논의들은 재조명되고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20) 이진석,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한국민족사상학회, 『민족사상』 제14권 제1호, 2020, pp. 137-169. 그러나 이 논문은 시민적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주의 재구성이라는 적절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제도적인 개혁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을 통해 '대리인'을 선출함으로써 공동체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만족한다. 혹은 투표에 대한 거부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이나 환멸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처럼 추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정치적 규칙과 질서가 마련된다면 우리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전혀 다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입론은 다문화주의 시대에 정치적 주체와 실천의 외연에 대해서도 새롭게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다문화 시대에 민주주의는 규범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발언권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명백히 동료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등장시키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적'에 기반한 선거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발언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행적 규칙으로 사고되는 국민국가에 기반한 시민권, 영토에 기반한 주권과 지배적인 민족주의의 논리 역시 변화와 재구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성원권의 내용 및 사회 질서의 성격 또한 이주민과 정주민 집단 간 역동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주민 집단 내부의 치열한 논쟁 등 쟁투적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고 분명히 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세계적 차원의 제약을 받겠지만 말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 시대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어떤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들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모두의 토론과 합의이며 그 결과물을 사회적 규칙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이다.[21]

---

21) Barry, B., *Culture and Anarch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4. 소수자의 주체성과 '되기'(becoming)의 정치

1) 소수자 주체성의 정치적 함의

다문화주의가 주목하는 소수자는 근본적으로 위계적인 이분법의 맥락에서 규정된다. 즉,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 우월과 열등, 정상과 비정상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다수와 소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이런 척도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정주민과 이주민, 장애인과 장애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나아가 엘리트와 대중 등의 사회적 배치가 작동한다. 소수자를 논하면서 양적인 수의 많고 적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과거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에서 인구의 90% 이상은 흑인이지만 10%도 안 되는 백인이 다수자였고 흑인은 소수자였다. 설사 여성이 남성보다 수적으로 많을지라도, 사회학적 수준에서, 여성은 소수자로 간주된다. 물론 대다수의 소수자 집단은 수적으로도 소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수자 개념은 수의 많고 적음과도 관련이 깊지만 권력관계에서 지배-종속 관계 혹은 위계서열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지배적인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귀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대의정치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의 결정권이 배타적으로 작동한다면, 다수자 권력은 엘리트에게 있는 것이며 다수의 대중은 소수자의 위상을 갖게 된다.

또한 소수자라는 개념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정의될

---

p. 258.

22) 들뢰즈의 소수자 철학의 정치철학적, 다문화적 함의에 대해서는 김명주, 「질 들뢰즈의 "소수자" 개념의 현대 철학적 의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제49집, 2017.

수 있는 바, 소수자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수자가 될 수 있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있다면 그는 집에서는 아버지 권력을 행사하는 다수자일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미국 국민이 된 흑인은 백인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자로 되지만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는 다수자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23] 이런 맥락에서 "나는 소수자가 아니야"라는 생각은 협소한 관점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4]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일 것이다. 소수자로서 이들의 인권 및 차별과 억압은 향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는 점에 큰 이견은 없다.

소수자를 논함에 있어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적이며 소수자를 영구적인 위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소수자이든 다수자이든 정체성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며 복수적 기반이 정체성의 본질이다. 아울러 정체성을 고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자, 주류 세력의 정체성 변화조차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수자-다수자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억압적일 수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사회

---

23)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제39권 제6호, 2006, pp. 161-163.

24) 다수자-소수자 관계는 상대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위계적 이분법 속에서 장애인은 소수자이지만 만약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는 법-제도적으로는 다수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다수자가 된 후에 그가 다수자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훈육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수자 집단 내부에서도 '소수자'임을 표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정체성을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에 기반한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현상태를 유지,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수자와 연동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보통 소수자는 현실에서 약자에 속하지만 약자라는 개념은 강자를 전제하면서 배제되거나 밀려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바, 주체적 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객체화시킨다. 그러나 역사적인 경험을 보아도 소수자는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질서에 문제제기를 하고 위계적인 배치에 균열을 가져오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역량을 증대시켜왔다. 이런 관점에서 소수자의 주체성을 파악한다면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주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마주침을 통해 변화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주민의 주체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와 발언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들리지 않게 만드는 지배적인 정치구조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정치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되기(becoming)의 정치학과 다문화주의

이러한 소수자의 주체성과 정체성의 변화는 다문화주의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다문화주의를 명분으로 소수문화의 절대적 차이와 고정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실존적, 정치적으로도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becoming)로서 주체화는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정치적 주체화는 불변의 고정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척도(degree)가 되어

버린 본질에 귀속되고 고정된 불변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실천을 의미하는 바, 그 척도가 지배하는 상태와는 다른 존재 혹은 새로운 존재로 변이, 생성(creating)되는 것이다.[25] 그러므로 어떤 존재의 고정성에 속박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맞부딪침 혹은 관계맺기를 통해 양자 모두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존재는 언제나 생성이다(Being is Creating).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는 차이의 영속이 아니라 차이를 가로지르는 실천적 활동이다. 흑인과 백인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창조적 행위로서의 '되기'이다. '되기'라는 현재진행형이 의미하듯이 되기를 모색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뚫고 나가'고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소수자를 부각시킨다.[26]

이러한 논리를 이주민 집단에 적용한다면, 소수자로서 이주민 집단은 지배적인 정주민-다수자 집단과 동화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거나 지배적인 질서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전략을 넘어서 혹은 자신들만의 정체성 집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배타적 공동체 구성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민주화 역시 성별, 지역과 연령, 사회적 신분, 성적 취향 같은 라이프스타일, 정치적 이념 등에 있어 소수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포용하는 정의를 향한 진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이분법을 재구성하고 위계적인 질서의 변형을 가능하게 만들어왔다.

---

25) Deleuze and Guattari,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p. 76-78.
26) 이정우, 『천 하나의 고원: 소수자의 윤리학』, 돌베게, 2008, pp. 204-226.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문제가 지금은 중요한 공적인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더욱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인종과 문화 등의 다양성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마치 이는 가부장주의와 남성중심주의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에 여성의 주체성 문제가 남편과 아내 등 가족과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지만 결국 권위주의를 해체시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사회적인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새로운 규칙과 구조를 만들어온 역사적 경험과도 일치한다.

한편, 들뢰즈와 가타리는의 소수자 되기는 소수자가 직접 되라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적 속성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들과의 접속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7] 예컨대, 다수자로서 획일적인 정체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다름'을 표출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지배적인 가치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소수자 '되기'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소수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중심축을 소수자에 두는 실천적 자세도 소수자 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수자의 특성을 특권화 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적인 다수자 질서와 구조가 양산할 수 없는, 소수자만의 차이와 다양성의 자유로운 표출과 그 효과를 긍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조차 차이를 억누르는 장애인 권력이 있다면 그/그들은 이미 '다수자'가 된다. 정주민 입장에서 '이주민' 되기는 한글이나 한국문화를 이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민이 스스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의미할 것이며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요청에 적극 화답한다는

27) Deleuze and Guattari, 앞의 책, pp. 550-553.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정한 소수자-되기는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시혜적인 조치나 베푸는 자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관용은 그 자체로서는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 관용은 오히려 다수자와 소수자의 위계서열과 집단적 동일성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소수자-되기는 다수자-소수자의 이항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소수자-되기는 어떤 목적으로서 소수자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며 본질을 가정하는 것도 아니다. 소수자 되기는 집단적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므로 고정된 동일성의 공고화가 아니라 운동과 변화로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정치학은 특정한 정체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고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재구성으로 나아갈 때만, 또한 그것을 통한 통합으로 나아갈 때만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28] 물론 지배적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실천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소수자 '되기'가 수월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수월한 것이었다면 이미 세계는 훨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소수자의 주체화는 언제나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기획이 아직 실현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주체화 과정을 목적론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진행형으로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28)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장시킨다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민주적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적 공화민주주의에 대한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즉, 동일한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소속감의 대상은 기존의 민족국가나 인종집단 혹은 그 외의 하위집단 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성해가는 공동세계이며 이에 기반해 기존의 정체성과 다른 지반 위에서 유대와 통합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새로운 정치의 모색: 치안에서 정치로?

1) 치안과 정치

본 논문의 맥락에서, 윤리와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어진 정체성과 질서를 의미하는 배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어떻게 새로운 배치를 창조해낼 것인가이다.[29] 여기서 정치학은 지배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의 학문이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고자 하는 창조의 학문이다. 기존의 배치를 새로운 배치로 바꾸어 나가는 학문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수자 운동은 다양체(heterogeneity)[30] 즉, 이질적이면서도 다질적(多質的)인 열린 장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여러 형태의 고정적 동일성들, 본질주의적 동일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랑시에르의 주체화 논의와 결합하여 그 정치적 함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랑시에르는 정치(la politique)와 치안(la police)을 구분하는 바, 치안은 공동체의 결집을 목표로 구성원들의 안정된 합의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의 위계 질서 속에서 주어진 자리와 기능, 몫과 정체성을 부여, 유지하는 통치의 전략이다.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기존의 위계질서와 그 유지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1] 이에 비해 진정한 정치는

---

29) 이정우, 앞의 책, p. 207. 사실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정치 역시 결국은 권력을 배분하고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바, 정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만들고 유지하고 수정하는 권력을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과 효과를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30) 다양체는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장이며 하나의 척도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성과 끊임없는 생성 자체이다. 다양체는 개방적이기에 외부적인 것과 접속하면 그 성질이나 본질이 달라진다.

31) Ranciere, J.,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08, pp. 17-29.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던 것을 말로서 듣게 만드는 것"[32]으로서 새로운 주체와 가치, 질서를 창출한다는 '창조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랑시에르의 정치는 기존의 중심과 주변, 보편과 특수, 주체와 객체, 다수와 소수 등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치안적 나눔을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실천을 통해 입증하려는 해방(emancipation)의 과정이며 기존의 위계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이러한 정치는 이주민 등 소수자를 타자로 배제하고 관리하는 치안을 극복하고 그들을 평등한 주체로 만들려는 정치로 구성하는 해방의 기획이다.

이러한 정치적 쟁투는 공동체가 확고하게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지배적인 질서에 불일치와 불화(不和)를 가져옴으로써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33] 랑시에르에게 진정한 정치 변화는 권력의 소유자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발언권을 박탈당한 주체가 새로운 장에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틀이 짜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주어진 자리와 몫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주체화를 정치의 출발로 삼는 것이다.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못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력 상품' 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한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이나 정주민 집단의 시선인 배제와 시혜의 대상으로 벗어나,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존재를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웅웅거림을 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

32) Ranciere, J., 위의 책, p. 253.

33) Ranciere, J., 위의 책, p. 26. 여기서 불화는 유가적 전통에서 소인배들의 소모적 분란과는 상반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랑시에르의 불화는 차이와 다양성의 생산적인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구성을 의미하며 어떤 맥락에서는 차라리 유가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급진적 인권의 정치학

그러나 랑시에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단순히 열등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제된 자가 그 자체로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지배적 언어를 해체하는 것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자, 빈민, 소수자 등은 그 자체로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주체는 사회경제적 약자이자 정치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적 통치를 정치로 전환시키려는 주체성을 실천하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민이 출신국 국민이나 특정 종족 혹은 외국인 이라는 정체성에 머물고 단순히 좀 더 나은 대우를 목표로 갖는다면, 최소한 랑시에르의 관점에서, 그는 진정한 정치적 주체로 볼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맑스적인 관점에서 노동자계급이 그 자체로서는 열등하고 수동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오히려 대중이 열등적 존재로부터 변혁의 주체로,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정치적 자각을 통한 주체성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34] 그런데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공적 영역에서 울려 퍼지게 할 자원과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공적 공간에서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동세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속의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 청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위해 아렌트적 의미에서 평등한 주체로서 '말할 권리', '권리를 가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권의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5]

---

34) Balibar, Etienne, 서관모 외 옮김, 『대중들의 공포』, 출판사b, 2007, p. 33.
35) 김민수, "한나 아렌트의 인권의 정치와 환대의 윤리", 평화연구 제28권 2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pp. 189-221

보다 현실적이고 규범적 차원에서, 이런 모든 논의의 기반에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이자 지향으로서 인권을 보다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제도적 당위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소수자-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분명 인간됨(personhood)의 승인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이주민과 관련하여 주권과 국민의 경계를 의문에 부치면서 실현 가능한 인권의 급진화를 사고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발언권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을 보장한다면,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이들의 시민권 문제 역시 치열한 쟁투를 통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요구하는 이주민들의 정치적 실천은 공동세계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정치적 참여를 통한 정주집단의 새로운 주체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사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동시에 이주민 등 소수자의 주체성 함양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다층적인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격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것과 연관되며 국민국가의 정당성이나 국민의 경계조차 의문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체를 '생성'(becooming)으로 사고한다는 것, 이주민이나 소수집단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정주집단의 주체성과 정체성조차 언제나 변화에 놓여진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을 포함하여 소수집단이 주체로서 자신들의 고정된 정체성을 벗어나, 특정한 상황을 강제하는 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그것이 촉발하는 변화는 그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지배적인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self-effectuation). 그러므로 소수자의 정치는 지배적인 다수자의 헤게

모니와 배타적인 동일성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몫을 피지배적 소수자에게 수정, 확대하는 과정인 동시에 기존의 중심부-주변부의 위계적인 구조를 변형시키는 과정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창조되고 새로운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실천을 중심에 놓고 주체와 규칙의 관계를 사고한다는 것은 역동적인 현실 변화에 대한 설명력뿐만 아니라 주체성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규칙(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예컨대, 현재 이주민 집단에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지배적인 권리 체계 역시 다문화적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수준에서 주체와 구조의 변증법적 관계는 이론적 실천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실천과 주체화, 효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과 규칙의 변화는, 소수자 되기의 관점에 본다면, 억압적이거나 고착화된 관계를 변혁하는 동시에 좋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다수자가 규정한 질서와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한 사회가 가진 민주적인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소수자 되기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며 그런 차이만큼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이다.

추상적인 정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능력이나 발언권, 현재의

---

36)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실천을 통해 공동의 규칙과 원리를 재구성해나가는 실제적 기획에 대해서는 Wenger, Etienne. *Communities of Practice.* Cambridge Unversity Press, 1998.

자원이나 재화의 분배 상황을 문제삼으면서 규칙의 변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행위는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인 동시에 그와 연동되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별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적 연대가 모색될 수 있다. 결국 다문화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이주민들의 정치적 실천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정치의 외연과 내용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수집단, 정주민 집단의 다문화적 주체성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민주적 포용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모색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은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로서 그들의 주체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처럼 억압적이거나 배제적인 지배문화에 대한 도전은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과 연대에 기반하여 주류집단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맥락에서 소수자 '되기'(becoming)는 공동체의 고정되고 본질적인 정체성을 극복하고 잠재적인 정치적 공간과 역량을 실현하도록 사건을 촉발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차이'를 강조하거나 소수자의 특권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생성(differentiation)과 차이의 정치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이든 다수자이든 자신의 고정된 정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과 새로운 통합의 원리를 지향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김명주, 「질 들뢰즈의 “소수자” 개념의 현대 철학적 의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제49집, 2017, pp. 183-211

박수인, 「플라톤적 철학적 주체성에 대한 푸코식 고찰 : 플라톤적 자기 배려와 ‘플라톤주의의 역설’」,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5호, 2020, pp. 5-30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5권 1호, 2013, pp. 175-205

이용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따른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의 포용 가능성 탐색」,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1호, 2020, pp. 57-92.

이진석,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한국민족사상학회, 『민족사상』 제14권 제1호, 2020, pp. 137-169.

이철우, 「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분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0권 1호, 2017, pp. 199-254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9권 제6호, 2006, pp. 159-183

2. 단행본

이정우, 『천 하나의 고원: 소수자의 윤리학』, 돌베게, 2008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출판부, 1999.

Arendt, A., 이진우 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Balibar, Etienne, 서관모 외 옮김, 『대중들의 공포』, 출판사b, 2007.

Barry, B., *Culture and Anarch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Bellamy, R., “Republicanism, Democracy, and Constitutionism” In Laborde and Maynor(eds),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Oxford: Blackwell, 2008.

Bourdieu, P., “Rethinking the State: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Bureaucratic

Field." In George Steinmetz (ed.).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Deleuze and Guattari,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Foucault, M., 문경자 외 옮김,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08.
Giddens, A., 황명주 외 옮김,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Negri A, and Hardt., 『다중』, 조정환 외 공역, 세종출판사, 2008.
Ranciere, J.,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08.
Wenger, Etienne. *Communities of Practice*. Cambridge Unversity Press, 1998.

(투고일: 2021. 2. 8 심사완료일: 2021. 3. 19 게재확정일: 2021. 3. 23)

심승우
소 속: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강사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13호
전자우편: simmyn@naver.com

〈Abstract〉

The Subjectivity of Minority and the Search for Multicultural Politics

Sim, Seung-Woo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compositional mechanisms of structures and schemes centered on the practice of subjects.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subjects and the dynamics of multicultural politics. A true multicultural subjects can fundamentally change its identity amid growing differences and diversity. This paper emphasizes the capabilities of these subjects, and actively seeks multicultural politics,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dominant politics. In conclusion, the political practice of immigrants as a key player in a multicultural societ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new politics directly and indirectly linked to changes in our society. Such politics can trigger multicultural self-reliance of large groups and settlement groups. Such politics will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foster the democratic capacity of our society as a whole. Then, it is important to seek new politics that can actively think of changes in the identity of minorities and the majority.

Key words : Multiculturalism, Politics of Minorities, Structuralism (post-structuralism), Subjectivity, Reflectivity